

## 태양처럼 그저 자기를 불태우라②

—오성자족(吾性自足), 자기 자신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 심중식 한국산업기술대 겸임교수 |

이 글은 김흥호 선생으로부터 빛을 얻고 자신의 빛을 뿌리기 시작한 심중식 선생의 노자 강의입니다. 세 번에 걸쳐 1) 시소보박, 흰바탕을 보고 생명을 얻은 자, 2) 오성자족, 자기 자신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3) 위무위사무사, 말로 전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연재될 이 글을 통해 스스로 불태워 태양이 된 이의 에너지를 맛보십시오(편집자 주). —————

### 철인의 모습(2부)

古之善爲士者, 必非溺玄達, 深不可識, 是以爲之容: 豫乎若冬涉川,  
猶乎其若畏四隣, 嚴乎其若客, 渙乎其若釋, 屯乎其若樸,  
埴乎其若濁. 孰能濁以靜者, 將徐清. 孰能以動者, 將徐生.  
保此道者, 不欲尙盈.

(통용본 15장)

(옛날부터 도를 잘 실천하는 선비는 반드시 무엇에 빠지지 않고 깊은 근원에 통달했으니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 모습을 이처럼 형용해 본다.

그의 머뭇거림은 마치 거울에 살얼음 강을 건 가듯 조심스럽고, 그의 신중하게 살피는 모습은 사방 이웃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엄숙하기는 그가 마치 손님 노릇하는 것 같고,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은 마치 얼음이 풀리는 듯 하고, 질박한 모습은 마치 통나무 같고, 감싸는 모습은 마치 바닷물 같구나.

누가 능히 바다 같은 사랑으로 고요하게 가라앉혀 세상을 서서히 맑아지게 할 것인가.

누가 능히 지혜의 다스림으로 바람을 일으켜 세상을 서서히 살아나게 할 것인가.

이런 도를 지닌 자는 욕심을 내는 법 없이 다만 천지에 만물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네.)

선(善)이란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바로 되고 잘 움직이는 것이다. 무위자연의 도(道), 이런 도의 실천이 곧 선이다. 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마치 수영선수가 물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처럼 무엇이나 깊이 통달하여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수영선수가 되어 수영의 도에 통하면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빠지는 법이 없이 맘대로 움직이며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준다. 필비익현달(必非溺玄達) 심불가식(深不可識)이다. 그의 심오한 지혜와 사랑의 마음은 헤아릴 길이 없다. 그래서 비유로 형용해 보는 것이다.

철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코끼리가 살얼음을 건 듯 조심하고, 원숭

이가 두리번거리듯 사방을 두루 잘 살펴서 신중하게 처신하며, 결단할 때는 엄숙하고 단호하며, 해결할 때는 봄날 얼음이 풀리듯 환하고 깨끗하게 처리한다. 생명나무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모두의 안식처가 되어 넓은 바다처럼 일체를 사랑으로 감싸준다.

이런 사람이라야 능탁이정자(能濁以靜者), 장서청(將徐淸). 바다 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맑아지게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능비이동자(能以動者), 장서생(將徐生). 이런 사람이라야 능히 샘물 같은 지혜로서 만물을 살려낼 것 아닌가.

남산의 소나무처럼 말없이 서울의 탁한 먼지와 공해를 다 막아내고 씻어주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물과 산소를 뿜어내듯 끊임없이 정신적 산소와 생수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철인이요 도인이다. 사람들의 오염으로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 강물을 끌어들이고 받아들여 깨끗이 정화하고 승화시켜 하늘로 올리는 그 깊고 넓은 바다처럼 세상의 온갖 죄악을 사랑의 다스림으로 끌어안고 서서히 살려내는 자가 사랑의 도인이요, 지혜의 철인이다.

이런 사랑의 도를 지닌 지혜의 철인만이 전쟁과 착취와 음란의 세상을 고요함의 빛(靜者)과 움직임의 힘(動者)으로, 고요함의 지혜와 움직임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들뜬 욕망과 이기심을 잠재우고 서서히 본래적인 모습의 생명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철인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할까. 우리나라 삼남지방에는 동리마다 마을의 지킴이 같은 당산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아래 깊은 우물이 있었다. 언제나 시원하고 포근한 그늘을 제공하는 고요한 당산나무와 언제나 시원하게 솟아나는 샘물을 제공하는 깊은 우물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철인의 모습이다. 당산나무 그늘에만 들어가면 안식을 얻게 되

고, 우물에서 차고 시원한 샘물 한 모금만 마시면 바로 정신이 들었다.

그저 아낌없이 누구에게나 베푸는 나무의 모습만 봐도 기쁜 것은 거기에선 나라고 하는 이기심과 욕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끝 모를 탐욕에 시달리다가 지칠 대로 지친 영혼에게 안식과 생명을 주는 그 생명나무와 우물이 아니면 누가 번뇌의 열을 식히고 허무의 갈증을 해소하며 죄악의 고통에서 살려낼 수 있겠는가. 보차도자(保此道者), 이런 도를 지닌 자, 즉 생명나무와 우물물 같은 철인이 나오면 그저 온 세상을 생명수로 가득 적시고 맑은 바람이 가득하여 평화와 생명의 푸름만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랄뿐이다. 불욕(不欲), 일체의 욕심이 없이, 상영(尙盈), 그저 모두를 살려주고 살려주기만 바랄뿐이라는 말이다. 불욕상영(不欲尙盈)이다.

번뇌의 열을 식혀주는 생명나무와 서서히 정신이 들게 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는 샘물 같은 철인, 그의 특징은 무엇일까. 고요함을 가지고 서서히 맑아지게 하는 지혜와, 생명력을 가지고 서서히 살아나게 하는 사랑, 이런 지혜와 사랑의 모습을 지닌 철인이 되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인가.

## 철인의 길

### 1) 무위자연

道恒亡爲也，侯王能守之，而萬物將自化。化而欲作，將鎮之以亡名之樸。  
夫亦將知足，知以靜，萬物將自定。

(37장)

(도에는 언제나 억지가 없다. 왕이 그 도를 지키면 만물도 저절로

감화를 받게 된다. 변화되어 가는데 어떤 욕심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통나무를 가지고 그 욕심을 눌러야 한다. 그러면 또한 만족할 줄 알게 될 것이다. 만족함을 아는 지혜로서 고요하게 되면 만물이 저절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불욕상영(不欲尙盈), 욕심 없으면 그저 일체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경할 뿐이다. 이 말을 노자는 달리 말하여 무위(無爲)라 한다. 원문에는 망위(亡爲)로 되어있는데 당시에는 무라는 글자 대신에 없을 망(亡)을 썼다고 한다. 도의 세계는 언제나 무위다. 어머니가 되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위다. 그래서 사랑하되 사랑한다는 의식도 없고 존경하되 존경한다는 의식도 없다. 나무가 아낌없이 시원한 그늘을 베풀지만 거기에 무슨 자기가 베풀다는 의식은 조금도 없다. 나무가 시원한 산소를 만들어 내지만 거기에 조금도 누구를 위한다는 생각이 없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의식도 없고 산소를 만들어낸다는 생각도 없다. 태양이 하늘에서 빛을 비추지만 누구를 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비춰주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고 비춘다는 의식도 없다.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빛나는 것뿐인데 그 빛을 받아 만물이 산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자리리타(自利利他)라 하고 노자는 무위자연이라 한다. 자기는 그저 자기로서 살아갈 뿐인데 주위 모든 이들이 다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본래가 다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기적 욕망만 사라지면 번뇌가 그대로 진리요,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다. 생멸멸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樂). 생멸만 사라지면, 살고 죽는데 대한 집착만 끊어지면 그대로 적멸이요, 기쁨이 충만한 낙원이다.

어떻게 생멸이 끊어지는가.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 일이관지(一以貫之)의 도(道)를 가지면 생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일이관지란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일러준 말이다. “나는 하나로서 꿰뚫었는데 너는 그것을 알겠느냐?” 하고 공자가 묻자 제자는 곧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공자가 나가자 어리둥절한 제자들이 증자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증자는 충(忠)과 서(恕)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충(忠)이란 진리를 깨쳤을 때 나오는 사랑의 마음이고, 서(恕)란 도에 통했을 때 나오는 지혜의 마음이다. 욕심이 없어져야 사랑의 마음이 되고, 자기애가 없어져야 지혜의 마음이 된다. 욕심이란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는 몸에만 집착에서 나오고 자기애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마음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다. 이런 몸과 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심신탈락(心身脫落)이 되어야 진실의 세계를 살 수가 있다. 생에 대한 집착과 사에 대한 미혹을 끊고 이런 진실의 세계로 올라가는 길을 도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팔정도(八正道) 또는 육바라밀이라 한다. 이런 도(道)의 핵심이 곧 생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하루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식색을 끊는 것이다. 식색을 벗어나는 도를 가져야 생사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일도(一道)라 한다.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령의 체험을 통해 정욕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나로 거듭나는 것이다. 후왕능수지(侯王能守之).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되려면 능히 그런 자리를 지켜야 한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자기를 다스린다는 말이다. 이기적 욕망을 다스림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내가 나를 다스릴 때 만물은 저절로 감화를 받게 된다. 만물장자화(萬物將自化).

그런데 만물이 감화를 받게 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눈길을 남에게 돌리면 안 된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것뿐이지 남을 바로잡겠

다거나 내가 남을 도와주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화이욕작(化而欲作), 그렇게 되면 벌써 나는 악마가 되어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바로 생명나무를 붙들고 올라서야 된다. 통째의 생명나무란 나무, 내가 없어진 자리와 통하는 생명의 길이다. 통째의 생명나무를 붙들어 나라는 악마를 짓누르고 일어서야 한다. 그것을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도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공자는 그것을 위기지학(爲己之學)이라 한다. 자기를 바로잡는 공부라야 되지 남에게 끌려 다니는 위인지학(爲人之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저 십자가에 달린 것뿐인데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다. 무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 태양처럼 그저 자기를 불태우는 것뿐인데 만물을 살리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를 바로잡는다는 말은 자기를 없이한다는 노자의 무위나 같은 말이다.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나는 없이 있는 존재다. 없이 할수록 있어지는 존재가 나다. 무아즉대아(無我卽大我)가 나다. 노자는 그것을 무위자연이라 한다. 그런 없어질수록 있어지는 무위자연의 나가 될 때 나는 지족(知足)하게 된다. 부역장지족(夫亦將知足). 대저 그렇게 되면 또한 만족함을 알게 된다. 지족, 만족함을 안다는 말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요 자기로서 만족하는 것이다. 오성자족(吾性自足)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오성자족이 되면 저절로 고요하게 된다. 지이정(知以靜), 지족함을 알면 저절로 세상은 고요하게 된다. 또한 만물이 저절로 본래의 제자리를 회복하게 된다. 만물장자정(萬物將自定)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평화와 기쁨과 생명으로 넘치게 된다.

## 2) 무지무욕

罪莫厚乎甚欲，咎莫僭乎欲得，禍莫大乎不知足。知足之爲足，此恒足矣.

(46장)

(죄악 가운데 애욕보다 무거운 것은 없고, 허물 가운데 물욕보다 비참한 것이 없고, 불행 가운데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만족함을 아는 넉넉함을 가지면 언제나 풍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애욕과 탐욕과 교만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벗어나는 길은 시소보박(視素保樸)이다. 자기 자신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오성자족이다. 그래서 지족지위족(知足之爲足), 오성자족의 기쁨을 얻으면, 차항족의(此恒足矣),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된다.

기쁨은 언제나 진리를 깨닫는데서 오는 기쁨이라야 영원한 기쁨이지 진리와 어긋나는 기쁨은 참 기쁨이 될 수가 없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오성자족(吾性自足)이라 한다. 내(吾)가 진리(性)와 하나가 되어 자기 자신(自)이 되면 그 이상 만족(足) 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방온거사의 말처럼 일일사무별(日日事無別)이요 유오자우해(惟吾自偶諧)다. 하루하루가 특별할 것이 없으되 다만 나와 나 자신이 어울려 기쁨으로 충만한 것뿐이다. 유교 경전인 <대학>에서도 기쁨의 근원을 말씀이라 한다. 말씀과 일치된, 그래서 일체 거짓이 사라지고 뜻이 진실하게 되면, 즉 성(誠)이 되면 자겸(自謙)이라 한다.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리의 빛에서 도덕의 힘이 나올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는 말이다.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이런 기쁨이다. 그런 기쁨을 가져야 언제나 만족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격이 있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겸허하고 빈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 3) 무명

道恒亡名，樸雖微，天地弗敢辰，侯王如能守之，萬物將自賓。天地相合也，以逾甘寢，民莫之令 而自均安。始制有名，名亦既有，夫亦將知止，知止所以不殆。譬道之在天下也，猶小谷之與江海。

(32장)

(도는 영원한 것이라 이름이 없다. 생명나무가 비록 볼품없고 미미하지만 천지도 감히 부리지 못한다. 왕이 실로 능히 그것을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빈객(손님)이 된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면 달콤한 이슬이 넘치게 되고 백성들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고르게 살고 평안하게 된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자르고 쪼개면 비로소 이름이 있게 된다. 이름이 있으면 또한 이미 쓰임새가 정해진 것이요 생명력을 잃은 유위의 세계가 된다.

그러니 대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그칠 줄 아는 것이다. 그칠 줄 알아야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을 비유하면 마치 모든 골짜기의 시냇물들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무위의 길, 무지와 무욕의 길을 말한데 이어서 무명의 길을 말한다. 무지, 무욕, 무명, 무위, 이런 도는 영원한 것이다. 도는 시간을 초월한 것이요 공간을 초월한 것이요 세간을 초월한 것이요 인간을 초월한 것이다.

도항무명(道恒亡名)이다. 도는 영원하여 무엇이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도는 절대적 세계라는 것이다. 이름이 없는 세계, 인간의 인식범위를 넘어선 것이기에 무엇이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존재의 세계를 무엇이랴 이름으로 붙이면 그것은 실체화되고 이상화되어 악마가 되고 만다.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다. 나는 있고 있다. 나는 존재지 대상화할 수 있는 존재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존재로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의 계시로 체험할 수는 있다. 그것을 유일신이라 한다. 절대적 세계에서 계시로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노자는 도라는 절대적 세계를 말하기 위해 도항무명(道恒亡名)이라 한다. 도는 절대적 세계요 영원한 것으로 무엇이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무지지지(無知之知)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자기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다이몬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내가 독배를 마셔야 좋은가 아닌가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의 소리에 따라 독배를 마신다. 자기의 지식이나 논리로 따지고 헤아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따지고 연구해도 알 수 없는 지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소크라테스에게는 언제나 다이몬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무지지지라는 것이요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점이다. 소크라테스야말로 진정한 철인이었다. 지식을 넘어선 지혜,

또는 분별지를 넘어 통일지가 되고 통일지 너머의 그 무엇, 그것이 무지지라하는 것이다. 지금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라는 것도 그런 것이라 본다. 무위자연이 되기 위해서는 도항무명(道恒亡名)이다. 절대의 세계인 도와 부딪혀서 영원히 자기라는 이름이 사라져야 된다. 무명이 되어야 한다. 없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없이 있는 존재, 무명이 되기 위해서는 무지무욕이 되어야 한다. 무지가 되고 무욕이 되고 무명이 되어야 무위자연이 된다. 이것이 철인의 길이다. 이런 철인의 도를 사는 사람이 도인이요 이런 도인을 길러내는 분이 성인이다. 이런 성인이 되면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 무명의 도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도항무명(道恒亡名)이다.

박수미(樸雖微), 천지불감신(天地弗敢辰). 소크라테스가 비록 못생기고 불품없는 늙은이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그를 없이하지 못한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의 몸을 독약으로 독살했지만 그의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가 바로 절대의 세계인 도와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철학의 왕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철인들을 길러내게 된다.

후왕여능수지(侯王如能守之), 왕이 절대의 세계인 이런 도를 지키고 있으면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 몰려들게 된다. 만물장자빈(萬物將自賓)이다. 진공묘유라는 그 절대의 세계가 있기에 천지상합야(天地相合也), 하늘과 땅도 서로 화합하게 되고 이유감로(以逾甘寢), 이슬이 내려 만물을 적시게 된다. 마찬가지로 왕이 그 절대의 세계를 지키고 있으면 백성들이 저절로 하늘의 명령을 좇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평안하게 살게 된다. 민막지령 이자균안(民莫之令而自均安).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균안(自均安), 저절로 조화를 이루어 화목하고 평화롭고 기쁘

게 산다. 누가 명령하고 간섭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늘의 명령을 좇아 평화와 기쁨을 이룬다. 이것이 무위의 세계요 무욕의 세계인데 그런 이상세계를 나오게 하는 근원이 도라는 것이다. 분별지와 허욕과 명예와 거짓이 끊어진 무지 무욕 무명 무위의 세계라는 것이다. 이것을 일도(一道)라 한다. 식색을 끊고 진리와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도와 무위의 세계를 낳게 하는 절대적 세계, 절대적 존재가 무시되거나 실체화되면 온갖 악이 쏟아져 나오는 유위의 세계가 된다. 시제유명(始制有名), 그런 근원의 세계를 제멋대로 잘라내고 토막을 내서 무엇이냐 이름을 붙이면 시시콜콜 간섭하고 탄압하는 유위의 세계가 된다. 명역기유(名亦既有), 이름을 붙이면 벌써 유위의 세계, 악마의 세계가 된 것이다. 이름이 없는 절대자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면 벌써 악마의 장난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존재의 실체화의 다른 극단이 또한 존재의 무시요 존재망각이다. 그래서 중세에는 종교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존재를 망각하고 존재를 무시하는 현대에 와서는 어느 때보다 참혹한 세계대전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모순을 지양(止揚)하는 일이다. 존재 망각이나 존재의 무시도 안 되고 존재를 실체화하는 망상이나 이상숭배도 안 된다. 과학기술에 빠지면 존재 망각이 되고 종교나 이념에 빠지면 존재 실체화의 위험이 따른다.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의 머무를 데를 아는 사람이 철인이다. 부역장지(夫亦將知止), 대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머물 줄 아는 것이다. 하늘에 있어야 할 종교가 땅에 떨어져도 안 되고 땅에 있어야 할 과학이 하늘에 올라가도 안 된다.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지지소이불태(知止所以不殆), 머물 줄 알면 위태로울 것이 없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자리를 지켜 서로 소통할 때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만물이 무성하게 된다. 그

것을 중용의 도라 한다. 천지위언(天地位焉) 만물육언(萬物育焉)이다. 천지를 천지답게 하고 만물을 만물답게 하는 그것이 도라는 것이다. 하늘과 땅을 갈라놓는 분별지 너머에는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통일지가 있어야 하고 또한 분별지와 통일지를 넘어 모두를 살리는 중용의 도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무위의 세계, 사랑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하면 모든 골짜기의 강물을 받아들이는 바다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비도지재천하야(譬道之在天下也), 유소곡지여강해(猶小谷之與江海). 바다는 모든 천하의 인간이 사는 각 골짜기의 물을 다 받아들여 함께 하나의 생명으로 뛰놀게 하며 다시금 하늘의 구름으로 피워 올린다. 그런 바다의 모습을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이라 한다. 생사도 없고 더러움과 깨끗함도 없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없다. 시간 인간 공간을 초월한 생명의 세계라는 말이다. 우리가 살아야 할 도의 세계가 바로 그런 것이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심중식** | 한국산업기술대 겸임교수. 김흥호전집 편집인으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주역강해', '화엄경강해', '법화경강해', '원각경강해', '양명학공부' 등을 엮어냈으며 또 한 나알알나([www.naella.com](http://www.naella.com))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